



빠른 수해복구 위해 행정력 모은다

항구적인 대책 마련 추진... 주택침수지 재난지원금 지원 예정

지난 15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현황=15일 하루 동안 225.5㎢의 폭우가 쏟아지자 도로가 침수되고 저지대 주택가가 물에 잠기는 등 모두 118개소의 주택과 상가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남로터리 부근 저지대의 피해가 컸다. 이날 오전 12시부터 1시간 동안 57mm의 비가 한꺼번에 퍼붓자 대연혁신지구 내 토사가 유입된 빗물이 대연3동 수영로 366번길 일원 상가와 주택 12개소를 덮쳐 1억2,27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대연3동 신원그린아파트는 황령산 냉수대 계곡에서 내려온 토사가 대량 유입돼 아파트 곳곳에 잔재물이 쌓였다.

문현1동 인각사~성암사간 도로에는 인근 야산에서 유입된 토사로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빗물이 인근 저지대 빌라로 유입돼 침수피해를 입었다. 동천배수펌프장 인근 지역(12동)도 펌프장 그물망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물 흐름을 방해해 주택과 상가 50여 개소가 바닥 침수 피해를 입었다.

문현1동 부근은 고가도로에서 내려온 우수로 인해 도로변 측구가 막혀



이종철 구청장이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문현동 해안사 부근을 찾아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도로가 침수됐다. 이번 비로 용호동 오륙도 해파랑길관광안내소 건립현장~오륙도 선착장에 이르는 인도의 토사도 유출됐다.

이밖에도 각동에서는 이번엔 내린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했다.

▲복구상황=남구는 지난 15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직원인 조를 나눠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빠른 복구에 나섰다.

대연3동 대남로터리 일원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구는 침수 피해당일 소방서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양수펌프를 이용해 물을 뺐다. 지난 17일에는 대연혁신지구 시공사 현대·대우건설 현장소장과 부산도시공사 감독관, 구청관계자들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18일에도 현대건설 영남지사장과 만나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침수피해 민원에 대해 적극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연3동 신원그린아파트 토사 피해는 당일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장병들의 도움으로 복구됐다.

문현1동 인각사~성암사 진입로 구간 역시 피해 당일 구청 관련 부서원들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다. 문현2동 동천배수펌프장 인근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구 준설과 펌프장 침전물을 제거했다. 문현역 도로 침수지역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하수구를 준설하고 도로변 화단 토사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륙도 해파랑길관광안내소 건립현장~오륙도 선착장에 이르는 곳의 피해는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법면에 자연석을 쌓아 복구할 예정이다.

이종철 구청장과 구청 간부들은 집중호우가 내린 15일 오후 비피해 지역을 차례대로 돌며 현황을 살피고 복구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18일에도 대연3동 저지대 침수피해지 등을 찾아 상황을 둘러본 후 피해원인을 놓고 주민들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철 구청장은 관련 부서장에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용호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교통사고 예방 소음공해 완화 등 효과 커



용호로에 중앙분리대 화단이 조성돼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물론 도시 미관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고층아파트가 즐비한 용호동 간선 도로변에 나무와 꽃으로 단장한 중앙분리화단이 조성돼 도시미관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 29일 용호동 남부면 허시현길~이기대 어귀 사거리에 이르는 용호로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했다. 남구는 지난 5월부터 시비 3억5천만원을 지원 받아 0.7km의 사업구간에 느티나무와 송명국 등 5만 3,000여 그루를 심어 도시 숲을 만들었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갈대조명등을 설치, 야간에 다양한 색상

의 빛을 연출해 주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분리 화단이 조성되면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열섬현상 완화와 소음저감 효과 등이 예상된다. 또한 가로수가 없는 용호동 지역에 쾌적한 녹색 숲을 조성, 주민들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구지역에 조성된 중앙분리화단은 이번엔 준공된 용호로 화단과 지난해 만든 황령대로 입구 화단 등 모두 2곳이다.

남구 대학로 테마거리 조성

전선지중화 사업 시행, 트리아트 등 설치

남구는 8월 초부터 남구 대학로 걷고 싶은 테마거리 조성공사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완공된 부경대 답장허물기 사업에 이은 2차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대연동 부경대 정문에서 영남제본에 이르는 483m 구간이며 남구는 이곳에 전선지중화 사업과 보도정비를 통해 보행편의를 높이고 심터조성, 경관조명, 트리아트 등을 설치해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구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참여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 14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남구는 대학로를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4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열어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설계를 완료했다.

여기에는 명품거리를 대학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대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보도에는 트리아트를 디자인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로에는 (사)부산 대학문화연합회(회장 구자영)에서 거리공원과 담배락 벽화그리기, 거리장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어 앞으로 테마거리가 조성되면 이 지역이 젊음과 낭만이 흐르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문화연합회는 남구의 5개 대학총학생회가 주축이 돼 지난 3월에 발족한 단체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

민선5기 후반기 맞은 이종철 구청장

지난 1일 민선5기 후반기를 맞은 이종철 구청장은 "그동안 부산예술회관과 남구보훈회관 건립 등 남구의 미래를 밝혀 줄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30만 지역주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과 자원연계를 통한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년은 국·내외적으로 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평가'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 기관 등 중증부차와 부산시 등 상급기관의 구정 업무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예술회관 및 젊음의 광장 준공, 남구 보훈회관 건립, 남구 동행 푸드마켓 운영 등 남구의 미래를 밝혀 줄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도시기반을 다지기 위한 대표적인 역점사업 중 하나인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은,

▶현재 우리남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문현지구에는 금융하브 도시인 문현 금융단지 조성사업이 그리 순조로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역 여건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으며 생활환경개선과 주민 공동체역의 고취를 위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인 '감만 참살이', '우암 양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함께 공가 정비사업의 하나로 공·폐가를 리모델링해 어려운 이웃과 관내 대학생들에게 전·월세를 반값으로 임대해주는 '햇살동지'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기치고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종철 구청장이 남구의 미래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용승인과 함께 지하2층, 지상2층 부산은행 본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금융단지의 순조로운 조성과 함께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금융단지 배후지 조성이 완료되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또 다른 랜드마크이자 우리 남구는 명실상부한 21C 동북아 금융하브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남구에는 43개소의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재건축과 도시환경정비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인 용호4동내 용호5구역은 공평을 63%로 내년 4월 준공예정이며 주택재개발 대상인 대연3동 경성대 일원의 대연1구역도 올 4월에 착공되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악화로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그리 순조로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역 여건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으며 생활환경개선과 주민 공동체역의 고취를 위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인 '감만 참살이', '우암 양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함께 공가 정비사업의 하나로 공·폐가를 리모델링해 어려운 이웃과 관내 대학생들에게 전·월세를 반값으로 임대해주는 '햇살동지'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먼저 지역적 특성과 복지대상을 파악하고 복지지원도 면밀히 조사해 이러한 자원과 연계를 통한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남구 동행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자녀 교육 구입비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보다,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미래 남구의 기반이 될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과 대연혁신지구 주거단지 조성의 완결한 마무리를 통해 우리 구를 동북아 금융하브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며 오륙도 일원에 건축 중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와 스카이워크 전망대 착공, 생태광장 조성사업인 '자연마당'과 백운포마리나 조성사업 추진, 용호만 관광유람선 터미널 착공 등 남구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과 UN평화기념관 건립은 물론 대학로 문화거리, UN테마거리, 조형물 설치 등 부산남구 UN평화문화특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구정을 맡겨 주신 30만 구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를 부산을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일류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구정의 주인이 되시는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주민참여의 열린 행정으로 고객만족을 넘어선 고객감동의 체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기획감사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090331-중-12545호

5F 이벤트실

3F 제3병동/재활운동센터

2F 제2병동/문화홀

1F 제1병동/원무과/파이에온잔디광장

B1 주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영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병원

생각의 깊이가 다른 당신!

당신은 그랜드 자연음병원 가족입니다

황령터널 500m 앞

보호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병원

전화상담 051.612.0075

www.grandnature.kr/608-020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1번지

병원장 나용승 의학박사 現 부산의대외교수, 부산의과대학후, 동인고후

회장과 대인이 있는 자연음 병명병원

24시간 서비스

의료·간호·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

해산물과 바리케이트 조리준비는 재료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의학·한의학

보안 통합 의한정 재할 의학·한의학·합진 병원입니다.

호텔형 병원

더 세심하고 더 편안한 서비스로 다가갔습니다.

주간/월간 행사

월 15:00 쉼터는 웃음치료

수 15:00 쉼터는 노래방

금 15:00 미용실리치료(타일피)

GRAND NATURE HOSPITAL

그랜드 자연음 병원

GRAND NATURE HOSPITAL